

미국내 사과 재고 물량 변화 추세



2 월초 워싱턴의 사과 물류센터들은 76 백만 Bushels(약 36 리터)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사과협회에 따르면 13 년 2 월 1 일의 워싱턴 내 사과 재고 물량은 지난 5 년간 평균 재고량보다 13%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RAINIER FRUIT CO 의 마케팅 담당자에 따르면 워싱턴의 곡물 보유량은 미국 전체 곡물 보유량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부지역은 대부분의 과일재고량을 갖고 있지 않은 반면, 이곳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과일 재고량에 비하여 훨씬 웃돈 물량을 보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2 월 말보다 재고량이 11% 증가 하였지만 기타 과일 운송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며 2 월 둘째주 사과 유통량은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정도로 막대한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물량 증가는 사과 제품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칠레의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8% 가량 감소하는 등 사과 수입 물량의 감소가 예견 되고 있지만 봄, 여름 시기까지 현재의 사과 재고량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WENATCHEE VALLEY TRAFFIC ASSOCIATION 의 담당자에 따르면 올해 1 월 약 56 백만 Ct 의 사과가 워싱턴에서 타 지역으로 운송되었다고 전했다. 이 물량은 전체 농작물의 44%에 육박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지난 2 년간 1 월 물동량의 합과 비슷한 수치이다.

그는 계속해서 워싱턴 주간단위 물동량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물동량을 기록한 18 번의 주간 중에서 11 번이 올 시즌에 발생 되었으며 이러한 물량 이동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유통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2 월 둘째주가 가장 많은 물량이 유통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농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사과 품종 중 가장 높은 물량을 기록한 5 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2 년 사과 5 종 물량순 증감율

[단위 :백만 / 부셸]

품종	레드 딜리셔스	후지	갈라	골든 딜리셔스	그래니 스미스
2012	25	7.3	10.9	7.7	7.7
2013	27.1	12.1	12	8.7	7.8
증감율	8.4%	65.8%	10.1%	13.0%	1.3%

자료원 : static data, The Packers

관련 전문가들은 후지 사과 물량의 높아진 증가율에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고품질의 후지 사과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재고량의 증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사과 유통 물량은 서북 지역이 73 백만 부셸, 동북 지역이 2.4 백만 부셸, 동남부 지역 24 만 부셸, 중서와 남서 지역이 7 만부셸 순으로 워싱턴주의 사과 보유량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 주의 사과 품종 및 판매 구성비 소개

RED DELICIOUS	GOLDEN DELICIOUS	GALA
		
34%	10%	19%
FUJI	GRANNY SMITH	BRAEBURN
		
13%	12%	3%
HONEYCRISP	CRIPPS PINK	CAMEO
		
3%	3%	1%

자료원 : Washington state apple Commision

사과 선호도 조사(Apple at a glance, Fresh Trends 2012)

1. 자녀가 있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사과에 대한 구매율이 높음
2. 50~58 세의 소비자들은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들보다 사과 구매율이 낮음
3.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사과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5% 씩 증가 하는 추세임
4. 레드 딜리셔스 사과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품종으로써 전체 판매의 19%를 차지함
5. 이어 골든 딜리셔스와 그레니 스미스가 인기있는 품종으로써 각각 13%, 12%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음
6. 허니 크리스피와 핑크레이디 제품도 각각 4%, 3%의 세일즈를 기록하고 있음
7. 사과 구매자들의 28%는 유기농 사과를 구매한다고 밝힘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